



9
2470
2



門 9
統 2470
卷 6-2

高麗書院藏
孟熙得金

孟熙得金

孟熙得金
五代蜀

五命子圖
卷一
孝子



四九

錦江書院

第 十 九 号

孟熙販果實養親承顏順志不憚苦辛其父常云我雖貧養得一曾參及父亡絕漿哀號幾至滅性布苦于地寢處其上三年不食鹽酪遠近歎服因見鼠掘地得黃金數千兩因成巨富

詩家貧負販養嚴親承順何嘗憚苦辛歿後居喪能盡禮行同曾子異常人 掘鼠何由遽得金孝親於此感天心一時不但家能富贏得香名說到今

冥희는축사름이니과실을판라어버이를봉양호디느빛출바드며빛을순히히여신고함글새

리디아니하니그아비의양닐오디내비록가난
^{공저테지니지} ^{극호호지라} ^을길넛노라히더니아비
죽으매입에슈당을쓴코슬피블으지저거의죽
게되고거적을싸히퍼고그우히거쳐히여삼년
을염장을먹디아니하니원근사름이탄복히더
니쥐를보고싸흘판다가황금수천냥을어더인
히여거뵈되니라



徐積楚州人三歲父死朝朝求之甚哀母使讀孝經輒淚落不能止事母至孝朝夕冠帶定省應舉入都不忍捨其親徒載而西登第舉首許安國率同年入拜且致百金為壽謝而却之以父名石終身不用石器行遇石則避而不踐母亡悲慟嘔血廬墓三年雪夜伏墓側哭不絕音翰林學士呂溱過其墓聞之為泣下曰使鬼神有知亦垂涕也甘露歲降兆域杏兩枝合為榦既終喪不徹筵几起居饋獻如平生州以行聞詔賜粟帛元祐初為楚州教授又轉和州防禦推官徽宗賜諡節孝處士

詩嬰孩亡父日哀求感切中情涕泗流事母更能
躬孝養當時名士復誰儔 致養居喪總盡精神
明默贊顯祥禎重膺朝命榮褒寵今古人傳節孝
名

서적은 송나라 초주사림이니 삼세에 아버지의
니 아침마다 초즈며 심히 설워하고 어머니 곱
효경을 닦히면 문득 눈물을 굶치디 아니하고 어
미를 지효로 섬겨 관과 석물 마 초아도 석으로 문
안하며 과거 보라 서울을 시 마 어머니를 섬나디
못하여 효까지로 실어 갖더니 금제하매 장원허

안국이 동년 동방과거호 을 거느리고 드러와 보고

빅금을 주어 헌슈하라 하대 샐레하여 밧디 아니

하니라 아비 일흠이 돌척지라 하여 종신토록 돌

그르슬 아니 쓰고 길히셔 돌을 만나면 피하고 보

디 아니하며 어머니 죽으매 비통하여 피를 토하고

삼년을 녀묘하여 눈오노 밤이면 묘측에 엎디여

울기를 굶치디 아니하니 한림후사녀 진이 그 무

덤을 디나다가 듯고 눈물을 닦리 와 곧 오디 귀신

이 아름이 이실던대 소호 눈물을 지우리라 하더
라 든 이슬이 히마 다 무덤 앞 피느리고 슬고 나모

두가지 합하여 흥등걸이 되엿더라 거상을 뵈듯
되게 연을 짓디 아니하고 문안과 음식드리기를
상시갓티하니 원이 호형으로 주문흥대목식과
비단을 주시고 후에 초유교슈를하고 또 화슈방
어 휴관벼슬로 올므니라 휘종황태시호를 주셔
절호쳐시라하니라

吳二免禍 宋



吳二臨川小民事母至孝一夕有神見夢曰汝明日
午刻當爲雷擊死吳以老母在堂乞救護神曰受命
於天不可免也吳恐驚其母凌晨具饌以進白云將
他適請暫詣妹家母不許俄黑雲起日中天地冥暗
雷聲闐闐然吳益慮驚母趣使閉戶自出野田以待
頃之雲氣廓開吳幸免禍亟歸拊其母猶疑神言不
實未敢以告是夜復夢神曰汝至孝感天已宥宿惡
宜加敬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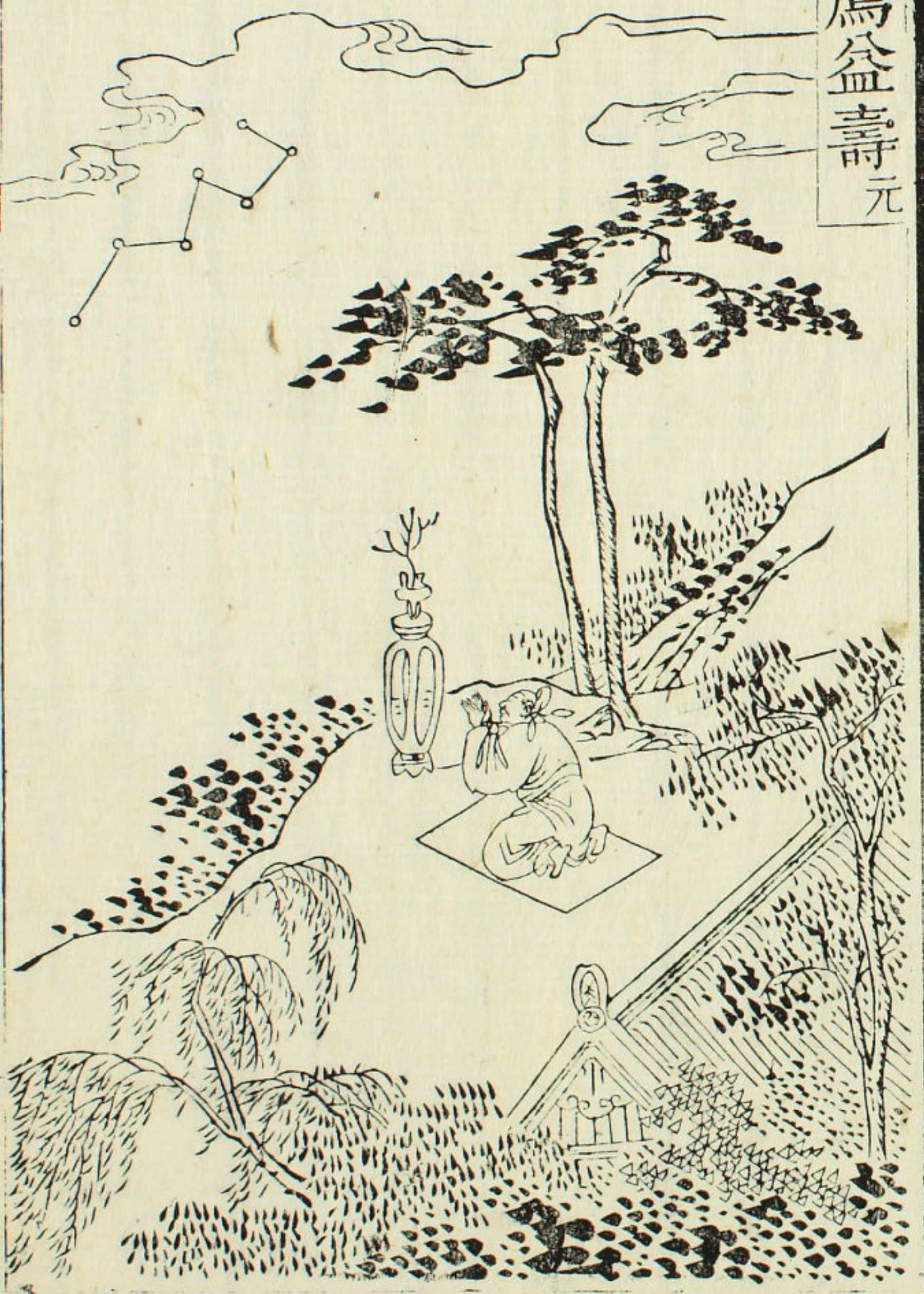
詩宿譴應知合殞生夢中神報甚分明凌晨具饌
還供母欲適他家恐母驚 雷霆震怒忽轟闐待

罰從容出野田雲散倏然天日霽只緣事母孝心
虔

오이논송나라님천벽성이라어미틀지효로섬
기더니흐로저녁은신령이숨에뵈여곧오디네
늑일오시면되딩에마자죽으리라오이늑은어
미이시니구호호쇼셔고빈대신령이곧오디
하늘귀명을받조와시니면티못호리라오이그
어미놀날가두려위호여새베음식을초아드
리고솔오디장춧다른디나가니청컨대잠간누
의집의가쇼셔어미허티아니호더니이우고검

은구름이니러나며히가나즌흥여서런디어둡
 고우레소리던동흥니오이더옥어미놀날가념
 녀흥여밤비문을맛고스스로들밧히나가거드
 리더니이응고구름이확연히열리논디라오이
 다흥이화를면흥고급히도라와어미들어르문
 지고오히려신령의말이맛디아니물의심흥여
 감히고티못흥터니이날밤에또꿈을유니신령
 이곧오디네지극흥효성이하늘과감동흥여이
 의전죄를샤흥니맛당이더옥공경흥여섬기라
 흥터라

王薦益壽元



王薦福寧人父嘗病甚薦夜禱於天願減已年益父
壽父絕而復甦告其友曰適有神人黃衣紅帕首恍
惚語我曰汝子孝上帝命錫汝十二齡疾遂愈後果
十二年而卒母沈氏病渴語薦曰得瓜以啖我渴可
止時冬月求於鄉不得行至深奧嶺值大雪薦避雪
樹下思母病仰天而哭忽見巖石間青蔓離披有二
瓜焉因摘歸奉母母食之渴頓止

詩父病精虔禱上天願將已筭益親年孝心感格
天心順恍惚神將帝命傳 母渴思瓜正歲寒那
堪山路雪漫漫雙瓜忽產空巖裏歸奉慈親痼疾

安

왕천은원나라복녕사람이나아비일즉병이등
하매천이밤에하늘귀비되원컨대나흘감하
여아비슈를더하여디이다하더니아비귀절하
였다가다시씨여그벗드러닐러존오디앗가신
인이누른옷납고블근건쁘고황홀이날드러닐
오디네아들이효행이이시니상테명하샤네나
열들을더하노라하더라하고병이드더어나아
그후열두하만의죽으니라어미심시쇼갈병이
이셔천드러닐오디외를먹으면내갈병이나으

리라 후되이 새겨을이라 모을에 구 후되엇디 못
후고 후 후여심오령이라 후는사히니르러대설
을만나천이나모아래셔눈을피후며어미병을
싱각후고하늘을우러러우터니홀연바회스이
를보니프른너출이얼젓는디외들히잇거늘사
다가어미게드리니어미먹고갈병이즉시나으
니라

劉氏孝姑

明皇



劉氏新樂人韓太初妻太初洪武七年遷和州挈家
行劉事姑甯氏甚謹姑在道遇疾劉刺臂血和湯以
進姑疾愈比至和州太初卒劉種蔬以給食養姑尤
謹又二年姑患風不能起時盛暑劉晝夜侍側驅蚊
蠅姑體腐蛆生又為齧蛆蛆不復生及姑病篤齧劉
指與之訣劉號呼神明割股肉和粥以進姑復甦越
月而卒劉殯舍側欲還葬舅墓哀號凡五年不能歸
事聞 太祖皇帝遣中使賜劉衣一襲鈔二十錠官
為送喪歸葬旌門復家

詩刺血和湯姑疾甦夫亡無食種園蔬蛆生姑體

偏能齧盛夏蚊蠅更為驅 朝廷特為返姑喪始
得還鄉葬舅傍旌表門閭兼寵賚古來孝婦實無
雙

뉴시논 황명신락사름이오한태초의안히니
태최흥무 명태조대
년호라 칠년에화주에귀향갈시가속
을드리고가더니뉴시식어미섬기물심히공근
흔디라식어미길히셔병들거늘골을질러피내
여약에섯거드리니병이나으니라화주에니르
러래최죽으니뉴시논물을심거먹으며식어미
봉양호를더옥공경하더니또두히만에식어미

五倫行實圖
풍병드러능히니더못하니이새극열이라뉴시
뉴야로겻히되셔모기와공리롤늘리고식어미
몸이석어귀턱이나거늘썩입으로귀턱이롤씩
니다시나디아니하터라식어미병이둥하야뉴
시의손가락을너홀어영결하니뉴시신명을브
르지디며다리슬을베혀죽에타드리니다서살
앗다가두돌만에죽으니뉴시집겻히빈소하고
식부의무덤에도라가장소하려하여슬피우려
다스히되능히도라가디못하터니 태조황
테이일을드르시고등스롤보내여뉴시롤의복

일습과은이십녕을주시고관가로셔상행을출
혀보내여도라와장소하고정문하고복호하다

五倫行實圖
婁伯捕虎

高麗



崔婁伯水原吏尙蕝之子尙蕝獵爲虎所害婁伯時
年十五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讎可不報乎卽荷
斧跡虎虎旣食飽臥婁伯直前叱虎曰汝害吾父吾
當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刳其腹取父骸肉安
於器納虎肉於甕埋川中葬父洪法山西廬墓一日
假寐其父來詠詩云披榛到孝子廬情多感淚無窮
負土日加塚上知音明月清風生則養死則守誰謂
孝無始終詠訖遂不見服闋取虎肉盡食之

詩 崔父山中獵兔狐却將肌肉餒於菟當時不有
兒郎孝誰得揮斤斫虎顱 捕虎償冤最可憐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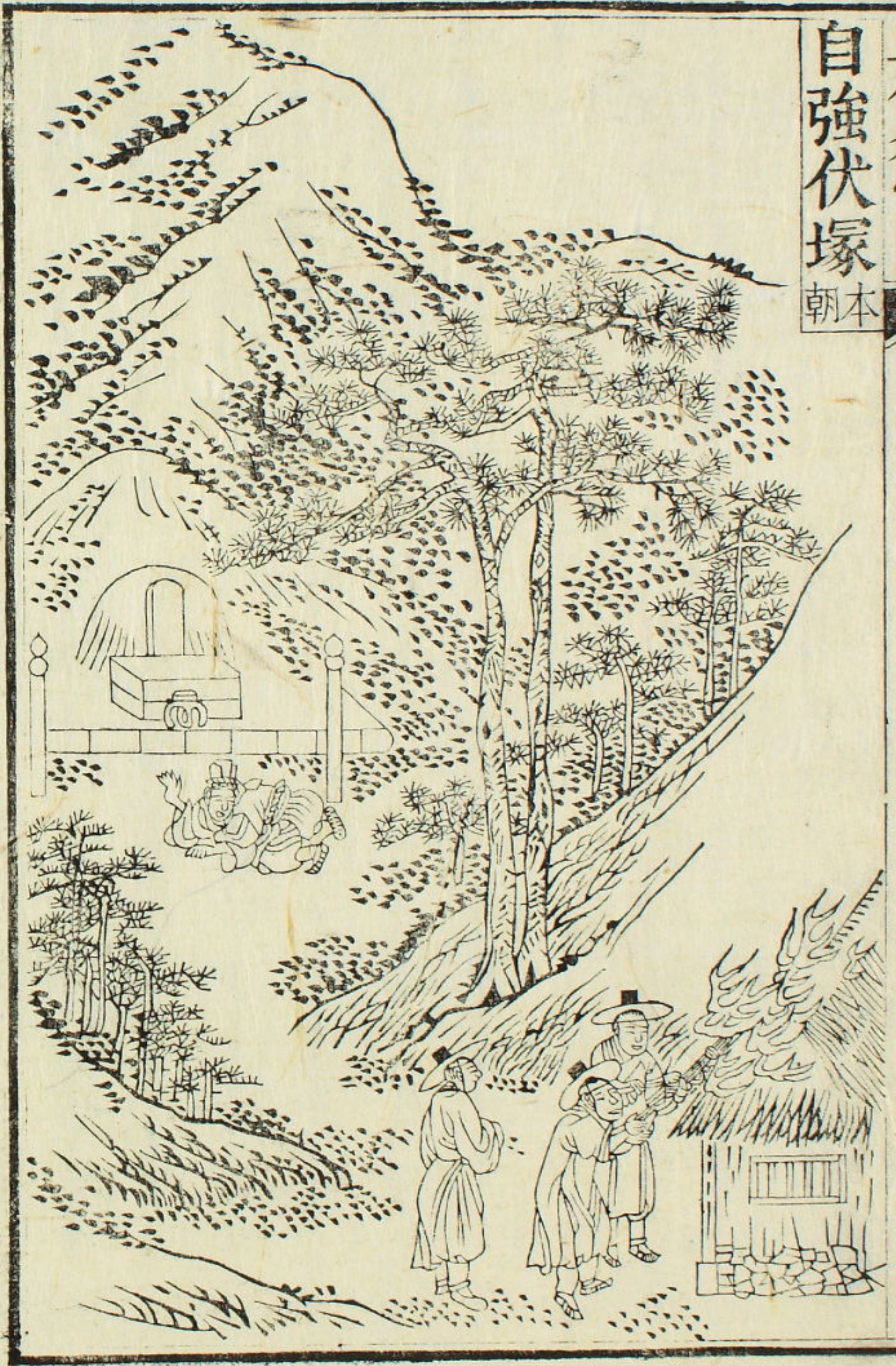
西廬墓又三年小詞來誦眞非夢端爲哀誠徹九泉

최누빅은 고려적슈원아전상자의아들이니상
재산영하다가범의게해훈배되니이썸누빅의
나히심오세라범을잡고져하거늘어미말린대
누빅이곧오디아빅원슈를엇디아니감흐리오
호고즉시돛괴를메고범의자최를썰오니범이
이의다먹고비불러누엇거늘누빅이바로알피
드라드러범을썩디저곧오디네내아비를해쳐
시내너를먹으리라범이썩리를치고업디거

늘돛괴로썩어비를헤티고아비썸와슬을내여
그러시담고범의고기룰항에너허물가온대못
고아비를홍법산셔편에장스호고너묘호더니
홀눈섬을썩니그아비와셔글을옴허곧오디가
시덤블을헤티고호호의집에너르니정이능기
미만호매눈물이무궁호도다흙을져셔날마다
무덤애더호니지음은명월청풍이로다사라셔
봉양호고죽으매덕희니뉘닐오디회시종이업
다호리오옴기룰다호매문득보디아니호더라
거상을막치매범의고기룰내여다먹으니라

五倫行實圖
自強伏塚

朝本



金自強星州人年幼喪父奉母承順無闕母喪不用
 浮屠一依家禮比葬遷父合葬廬墓三年服闋又欲
 爲父更居三年妻黨牽引登途仍焚其廬自強顧瞻
 烟光呼天擗地力排還歸伏塚三日不起姻戚感其
 孝誠爲復結廬以與之自強又居三年如初

詩髻年父逝奉慈聞順色承顏罔或違喪盡禮儀
 仍合葬守墳三載淚渾衣 終喪復爲父居廬苦
 被姻親強引裾顧視烟光號擗地至誠能感得如
 初

김자강은 본도성주사람이니 어려 아버지 죽고

어미를 섬기되 빛을 승수하여 그릇함이 업더니
 어미 죽으매 부모 동양의 법이라 룰쓰디 아니하고 혼졸코
 티가 레를 조차 그 아비와 합장하고 삼년을 녀묘
 하여 거상을 모치매 또 아비를 위하여 삼년을 다
 시이시려 할거늘 처족들이 잇글고 길로 나가인
 하여 그 녀막을 불지르니 조강이 낮빛출나라 보
 고 하늘을 부르며 싸흘두드리며 힘써 물니치고
 도로가 무덤알피사 흘을 업더니 디아니 하니
 처족들이 그 효성을 감동하여 다시 녀막을 지어
 주니 조강이 또 삼년을 이시되 처음 못더라

石珍斷指 朝本



俞石珍高山縣吏也父天乙得惡疾每日一發發則氣絕人不忍見石珍日夜侍側無懈號泣于天廣求醫藥人言生人之骨和血而飲則可愈石珍即斷左手無名指依言以進其病即瘳

詩父患沉痾久未痊兒心悶絕叫蒼天誰知一粒靈丹劑却在無名指細研 父子天倫萬古同奈隨王化有汗隆觀圖每向高風挹藉甚名聲永不窮

유석진은 본도고산현아전이니 아버련을이 악질을어더미일에병이발하야괴절하니사름

이태마보디못하느니라석진이듀야로것히되셔하늘괴브르지디며두로의약을구하니사름이닐오디산사름의씨를피에섯거먹으면가히나으리라후대석진이즉시왼손무명지름은허그말대로하어나오니병이즉시나으니라

五倫行實圖
殷保感烏朝本



尹殷保徐隲知禮縣人俱學於同縣知宜州事張志道一日相謂曰人生於三事之如一况吾師無子可養乎得異味輒饋每遇良辰必具酒饌如事父然張歿二人請廬墓於其親親憐而聽之乃玄冠腰絰居墓傍躬爨供奠尹父嘗病卽歸奉藥衣不解帶父愈令復歸廬月餘尹感異夢亟歸則父果以夢夕疾作未旬而死尹晨夕號哭不離喪側旣葬廬父墳一日飄風暴起失案上香盒數月有烏銜物飛來置塋前人就視之卽所失香盒也至朔望猶奠張墳徐亦終三年宣德壬子事聞殷保隲並命旌門拜官

詩孔門廬墓載遺編師道千年廢不傳誰料窮鄉
初學輩種楷腰經企前賢 一體而分性本真夢
驚親瘡氣通神慈烏反哺能相感香盒銜來慰棘
人

윤은보와서즐은 본도지레현사람이니훈가
지로그고을사람장지도의게글비호더니훈는
서로닐오디스승은부모와훈가지니훈를며우
리스승이주식이업소디라훈고도훈음식을어
드면스승을먹이고명일을만나면쥬찬을마초
아아버섬기듯호더니장지되죽으매두사람이

그어버이게녀묘호를청훈대어버이어옛비너
겨허하니이에제복으로스승의묘측에이셔몸
소밥지어제뎌을बाट드러니은퇴아버병들매즉
시도라와탕약을बाट드러오시셔물그르디아니
훈고아버병이나은매은보로훈여곰다시녀막
의도라갓더니월여의은퇴고이훈숨을쉬고쉴
리도라오니아버과연숨쉬던날로병이들엇는
디라열흘이못훈여죽으니은퇴도석으로호곡
훈고상추을쳐나디아니훈고장후의아버무덤
의녀막훈시훈는급훈브람이니러나상우히향

합을일헛더니 수월만 의가마귀며어슬물고느
 라와 무덤알피두거늘사름이가보니일헛던향
 합이러라삭망이면오히려스승의 무덤의제하
 고셔즐도또훈게셔삼년을막치니선덕 명선종황
데매년호
 라 임주에 상이이일을드르시고두사름을다
 정문하고벼슬하이시다

五倫行實圖卷第一

五倫行實圖卷第二目錄

忠臣

- | | |
|------|------|
| 龍逢諫死 | 欒成鬪死 |
| 石碯純臣 | 王蠋絕脰 |
| 紀信誑楚 | 蘇武杖節 |
| 朱雲折檻 | 龔勝推印 |
| 李業授命 | 嵇紹衛帝 |
| 卞門忠孝 | 桓彝致死 |
| 顏袁罵賊 | 張許死守 |
| 張興鋸死 | 秀實奪笏 |

演芬快死

若水効死

劉韜捐生

傅察植立

邦父書襟

岳飛涅背

尹穀赴池

天祥不屈

枋得不食

和尚噴血

絳山葬君

蝦蟆自焚

普顏全忠

堤上忠烈

丕寧突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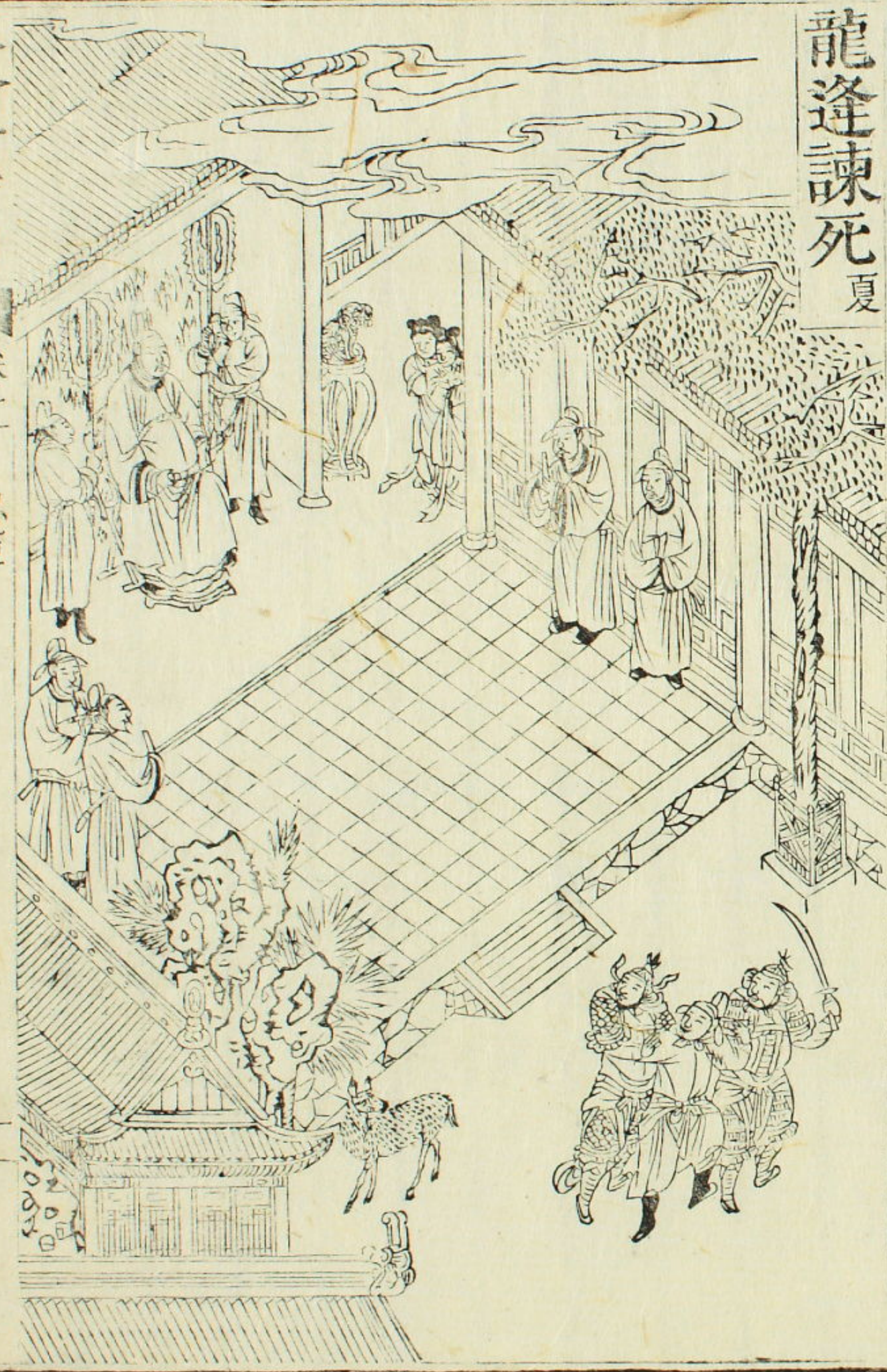
鄭李上疏

夢周殞命

吉再抗節

原桂陷陣

龍逢諫死
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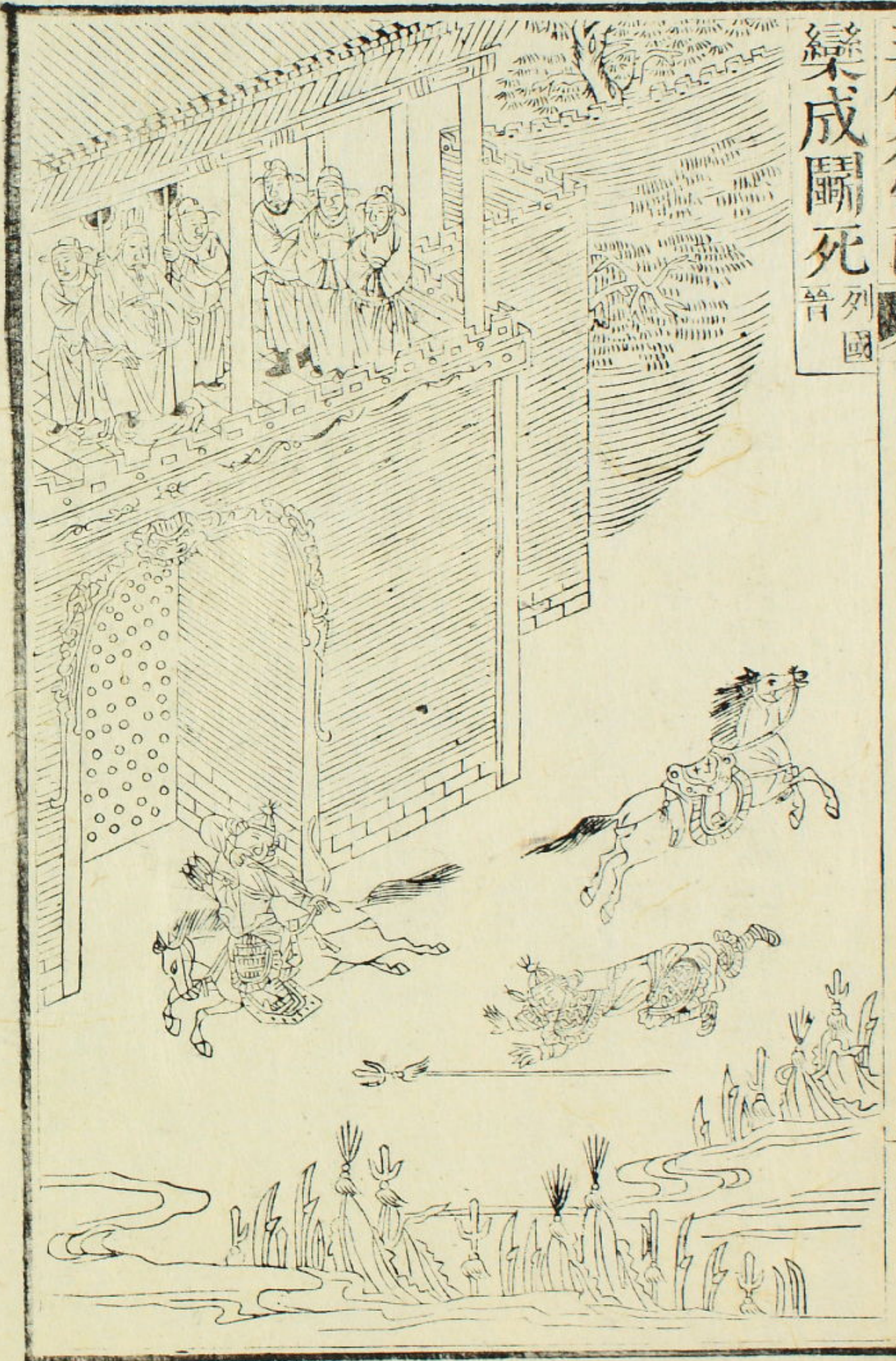


五作不實圖
桀鑿池爲夜宮男女雜處三旬不朝關龍逢諫曰人君謙恭敬信節用愛人故天下安而社稷宗廟固今君用財若無窮殺人若不勝民惟恐君之後亡矣人心已去天命不祐盍少悛乎不聽龍逢立不去桀殺龍逢

詩夏桀荒淫毒下民弗親朝政至三旬輕生極諫言辭切得似龍逢有幾人 庭立陳辭冀小悛如何不聽殺忠賢民言曷喪眞堪畏自道予生命在天

하나라님군걸이모슬푸며어두은집을민들고

남네흔디이셔오리도회밧디아니흐니농방이
간흐여곧오디인군이검공흐고경신흐며지름
을셜용흐고사름을스랑흐는고로련해평안흐
고샤직종묘를보전흐느니이제군은지름쓰기
를궁진흐미업슬드시흐고사름죽이물밋쳐못
홀드시흐니백성이오직군이더디망홀가두려
위흐는디라인심이비반흐고련명이돕디아니
흐거늘엇디조곰도못치디아니흐느니잇가걸
이듯디아니흐거늘농방이셔고가디아니흐니
걸이농방을죽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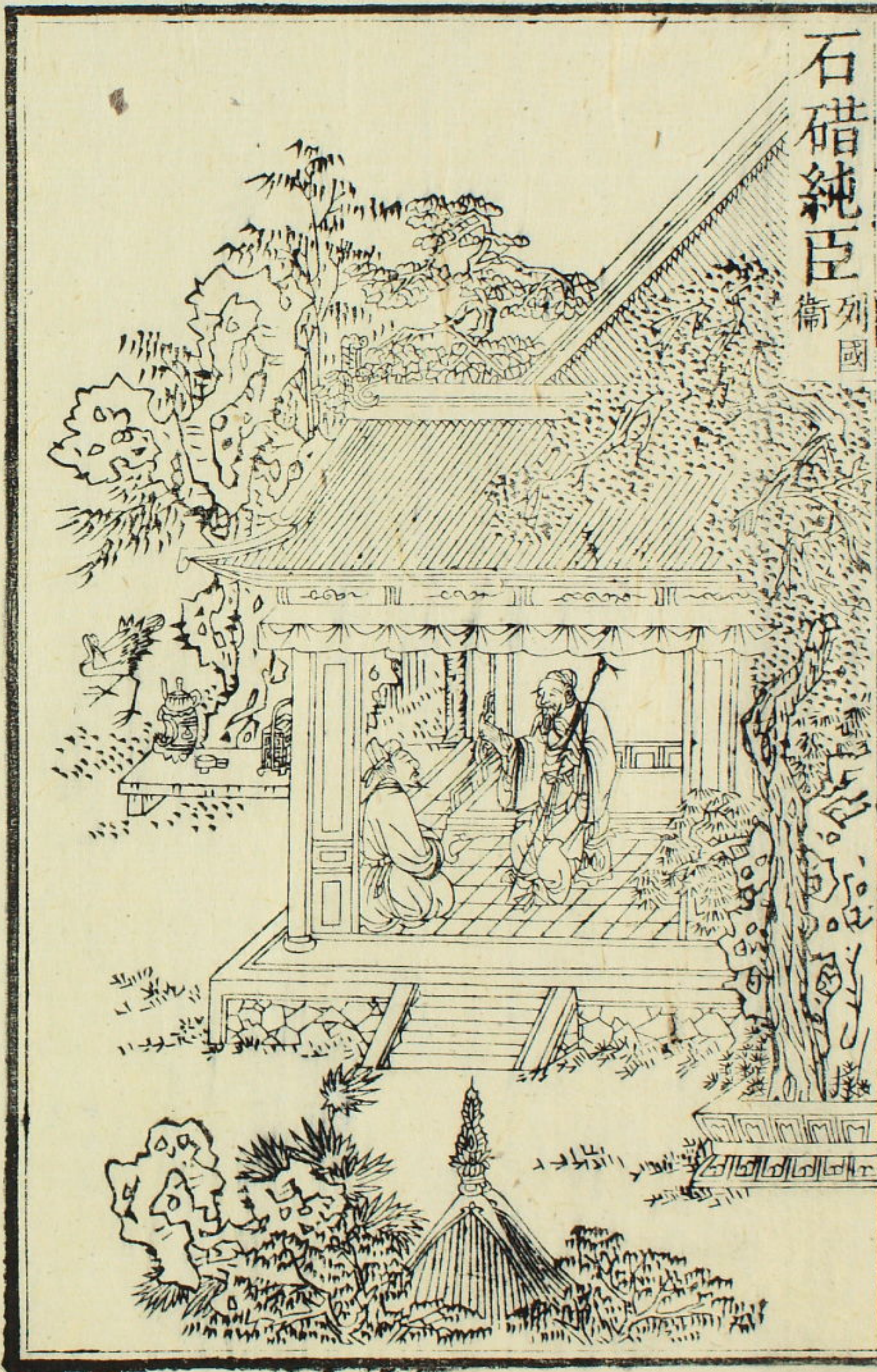


曲沃武公伐翼殺哀侯止欒共子曰無死吾以子爲
 上卿制晉國之政辭曰成聞之民生於三事之如一
 父生之師教之君食之非父不生非食不長非教不
 知生之族也故一事之唯其所在則致死焉報生以
 死報賜以力人之道也成敢以私利廢人之道遂鬪
 而死

詩武公伐翼殺哀侯止死欒成待欲優縱受上卿
 專國政其如不共戴天讎 君師自古生之族所
 在唯應以死酬大義曾中曾識得肯將私利爲身
 謀

던나라곡옥무공의익사흘터이후를죽이고난
성을잡아닐오디죽디말라내닐로써상경벼슬
을응여나라정스룬마음알게하리라성이스양
하여글오디나는드르니백성이세곳의사라섬
기물흐글곳티흐다하니아비나흐시고스승이
마르치고남군이먹이시니아비아니면나디못
하교밥이아니면주라디못하교마르치디아니
면아름이업는교로흐글곳티섬겨죽기롤닐위
니니살오니는죽기로써갑고주는니는힘으로
써갑흐미사름의도리라네엇디니로써사름의

머리뉘뉘하리어하디니의여빠화죽이니라



衛州吁弑桓公而立未能和其民石碣子厚問定君
 於石碣碣曰王覲為可曰何以得覲曰陳桓公方有
 寵於王陳衛方睦若朝陳使請必可得也厚從州吁
 如陳碣使告于陳曰衛國褊小老夫耄矣無能為也
 此二人者實弑寡君敢即圖之陳人執之而請蒞于
 衛衛人使右宰醜蒞殺州吁于濮碣使其宰孺羊肩
 蒞殺厚于陳君子曰石碣純臣也惡州吁而厚與焉
 大義滅親其是之謂乎

詩家兒當賊致紛紜來問和民與定君國小無能
 身亦老勸令王覲是奇勳 陳人討賊是誰因老

子謀謨動四隣大義滅親如欲識請看青史記純臣

위나라 주위 환공의 첩 아들이라 환공을 죽이고 스스로셔니
빅성이 화티아니 환공의 첩 아들이라는 디라 석작의 아들 휘작드
려 무려 곧 오디 엿디 환공의 첩 아들이라면 님군을 덩히 리 잇가 작
이 곧 오디 턴즈기 뵈오미가 환공의 첩 아들이라니라 휘 곧 오디 엿
디 뵈어 더 뵈오 리 잇가 작이 곧 오디 진 환공이 브
야 흐로 련즈기 통이 잇고 진과 위 또 화목하니 만
일진 환공을 보고 청히 면가 히 되리 라 석 휘 주우
로 더 브러 진으로 갓 더니 작이 사름으로 환공의 첩 아들이라여 곱

진에 고히여 곧 오디 나라히 적고 내 늙어 능히 흘
일이 업는 디라 이 두 사름이 실로 우리 님군을 죽
여 시니 청권대 즉시 도모하라 진 환공이 주우와
석 후를 잡아 위사름드려 와 죽이라 환공의 첩 아들이라대 위인이
우지 이비슬라 취를 보내여 주우를 죽이고 석작이 또
가신을 보내여 그 아들 후를 죽이니 군지 곧 오디
석작은 통순흔신해라 주우를 의위 흘시 아들
참예하니 큰 의로지 친을 멸하다 환공의 첩 아들이라는 석작을 너
르미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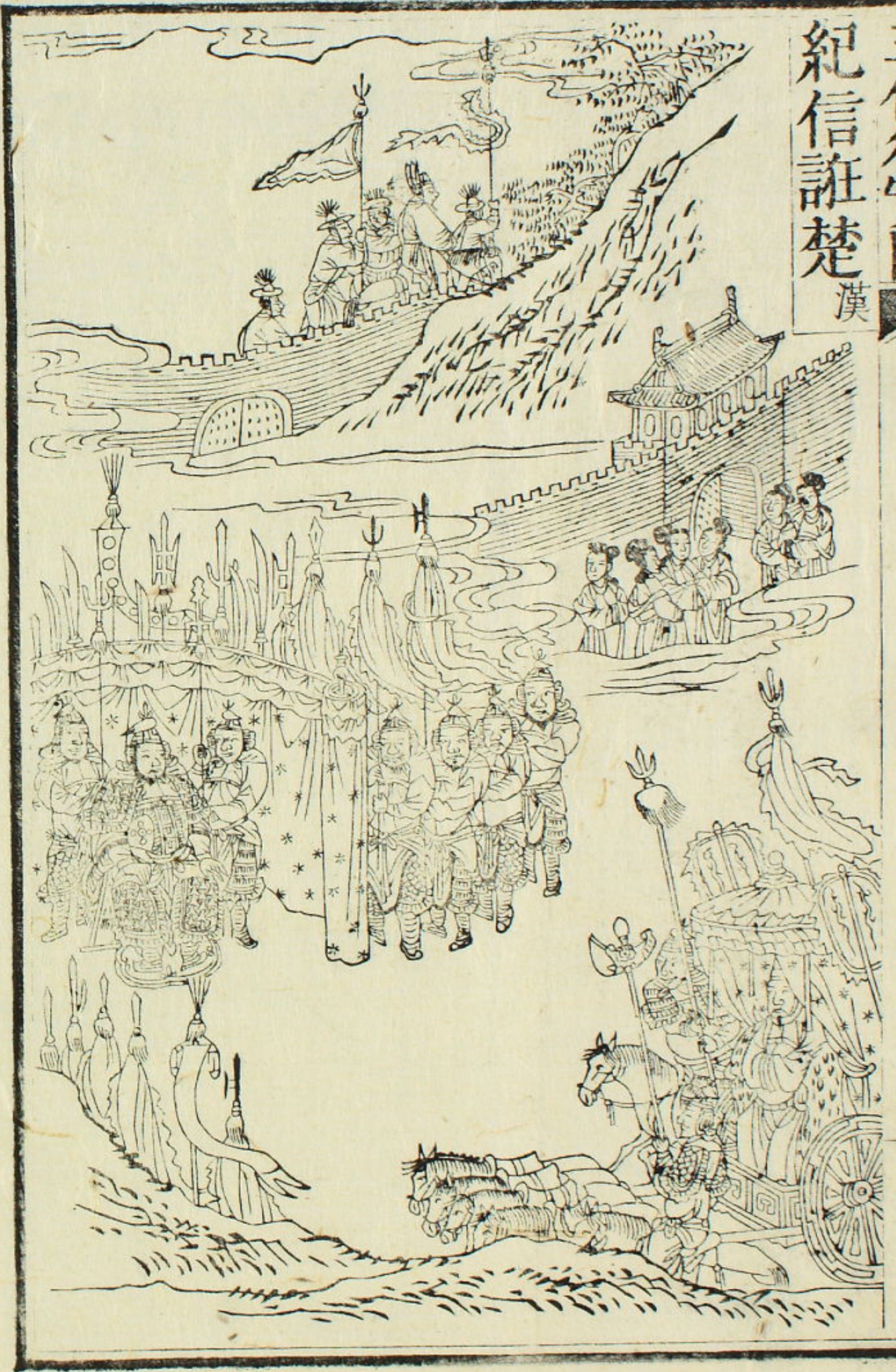


燕樂毅破齊聞畫邑人王蠋賢令軍中環畫邑三十里無入使人請蠋蠋謝不往燕人曰不來吾屠畫邑蠋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齊王不用吾諫故退而耕於野國破君亡吾不能存而又欲劫之以兵吾與其不義而生不若死遂經其頸於樹枝自奮絕脰而死

詩燕人圍畫欲屠城節士安能枉已行不事二君當日語凜然千載樹風聲君亡國破不能存非義而生豈足論經死樹間方自慊千秋地下作忠魂

연나라당슈악의제나라를파하고획음사름왕
축의어딜물뜻고군등에녕하여획음삼십리를
침노티말라하고사름으로하여곰축을청호대
축이샤례하고가디아니하니연사름이곧오디
오디아니하니면획음을뜻디르리라축이곧오디
릉신은두님을을섬기디아니하고넬녀는두지
아비를곳치디아니하니제왕이내간하는말
을쓰디아니하고로물러와들히밧가터니나라
히파하고님군이망하여시니내능히보존케못
하고또군스로협박하고저하니내그블의코살

므론차르리죽음만스디못하다하고그목을남
게돌고스스로느려디니목이썩쳐죽으니라



紀信漢將項羽圍滎陽漢王請和割滎陽以西爲漢
 范增勸羽急攻滎陽王患之信曰事急矣臣請誑楚
 王可以間出於是陳平夜出女子滎陽東門二千餘
 人楚因四面擊之信乃乘王車黃屋左纛曰城中食
 盡漢王降楚楚皆呼萬歲之城東觀以故王得與數
 十騎從西門出走成臯羽燒殺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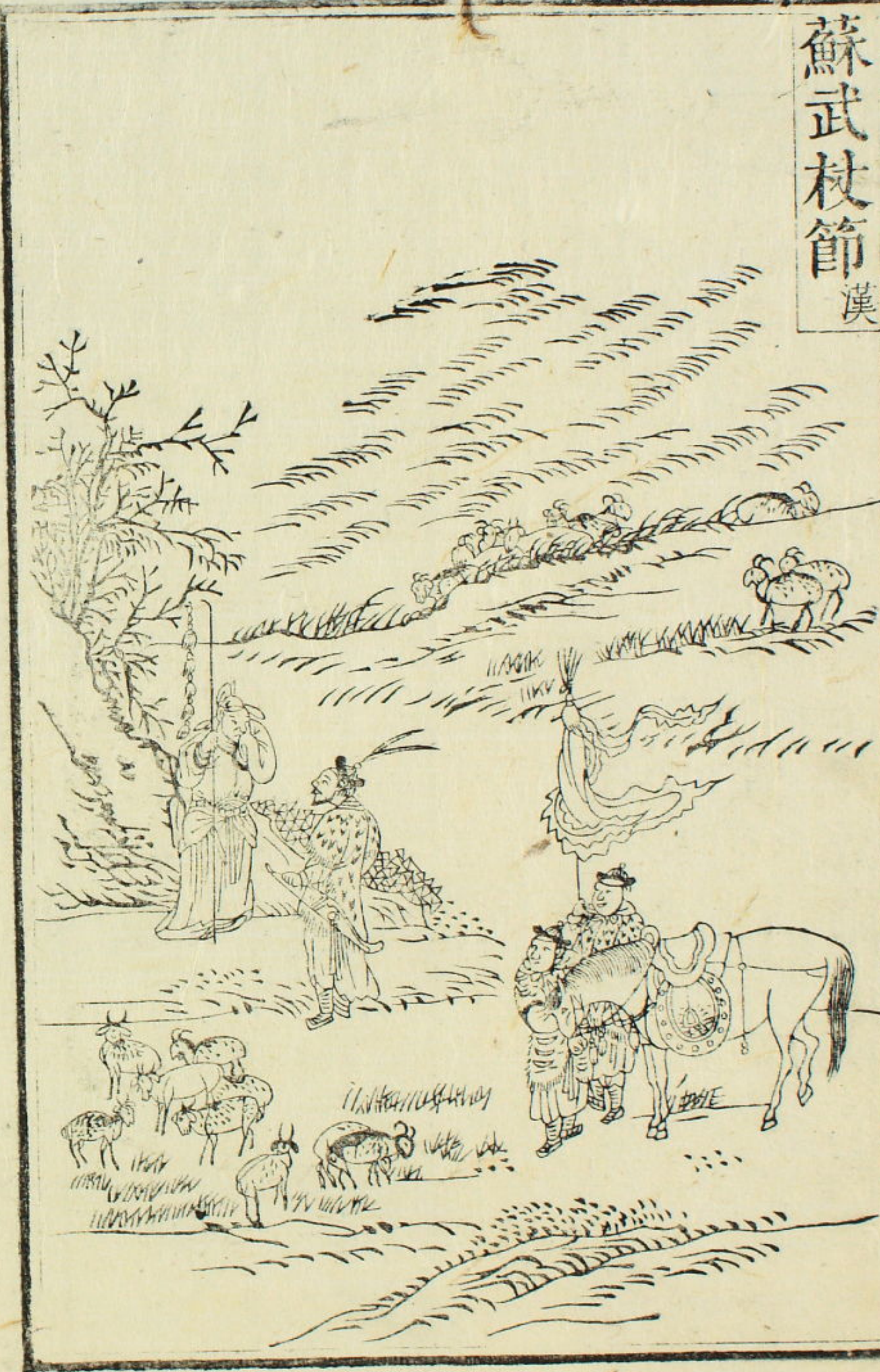
詩漢王當日被重圍事急何人解指麾不有將軍
 謀誑楚陳平雖智計無施 攀龍附鳳幾英雄黃
 屋生降爲沛公帝業縣縣基此舉蕭何不是漢元
 功

과신은한나라양슈니항위형양을에위배거늘
한왕이싸흔베혀화친을청하니범증이항우를
권하_여형양을급히타라하_거늘왕이근심하_시
과신이곧오디일이급하_디라신이청컨대초를
소길거시니왕은스이길로드라나쇼셔하_고이
에진평이밤에겨집이천여인을동문으로내여
보내여빠하_고려하_고는테하_니초나라군사스면
으로타거늘신이이에왕의술위를드_고황옥좌
독_위니_군의_라으로나와곧오디성등의군량이진하_여
한왕이초의항복하_고노라하_대초군이다만세를

부르고성동문으로가보거늘그스이에왕이수
십기를거느리고셔문으로나성고로드라나니
항위과신을불에솔와죽이니라

蘇武杖節

漢



蘇武杜陵人以中郎將使匈奴會虞常謀殺衛律單于使律治之常引武副張勝知謀召武受辭武引刀自刺律驚自抱持武氣絕半日復息律謂武曰副有罪當相坐武曰本無謀又非親屬何謂相坐復舉劔擬之武不動乃幽武大窖中絕不飲食武齧雪與旃毛并咽之徙北海上使牧羝曰羝乳乃得歸武掘野鼠去草實而食杖漢節牧羊臥起操持節旄盡落單于使李陵置酒謂曰足下兄弟皆坐事自殺大夫人已不幸婦亦更嫁人生如朝露何自苦如此武曰臣事君猶子事父子爲父死無所恨願勿復言陵與飲

數日復曰一聽陵言武曰自分已死人矣必欲降請
効死於前陵見其至誠歎曰嗟乎義士陵與衛律罪
通于天因泣下與武決去始元六年武始得還

詩初承帝命使匈奴那料荒陲苦被拘強引受辭
終不屈堪嗟自刺絕還蘇 牧羝掘鼠歷多艱杖
節持旄意尙閑不聽陵言期効死安知後日得生
還

소무는한나라두릉사람이니등낭당벼슬로써

흥노 북방오랑
개칭회라에소신갓더니마침우상이위를 상우

위를은다한나라사람은
로흥노에함복함재라을죽이려하다가발각함매선

위 흥노왕
이라위를로흥여곰사학하라하니우상이소

무의부스당승을다힌대물이무를블러료소를

바드니위갈을싸혀스스로역디르니위를이늘

나붓들고말린대위반일을기절하였다가다시

서거늘를이무드러닐러온오디부스의죄로맛

당이년좌하라위온오디본디모계업고또내

친속이아니어늘엇디흥여년좌하리오를이갈

을드러죽이려하되위요동티아니흥노디라이

에무를디함에가도고음식을은흥니위를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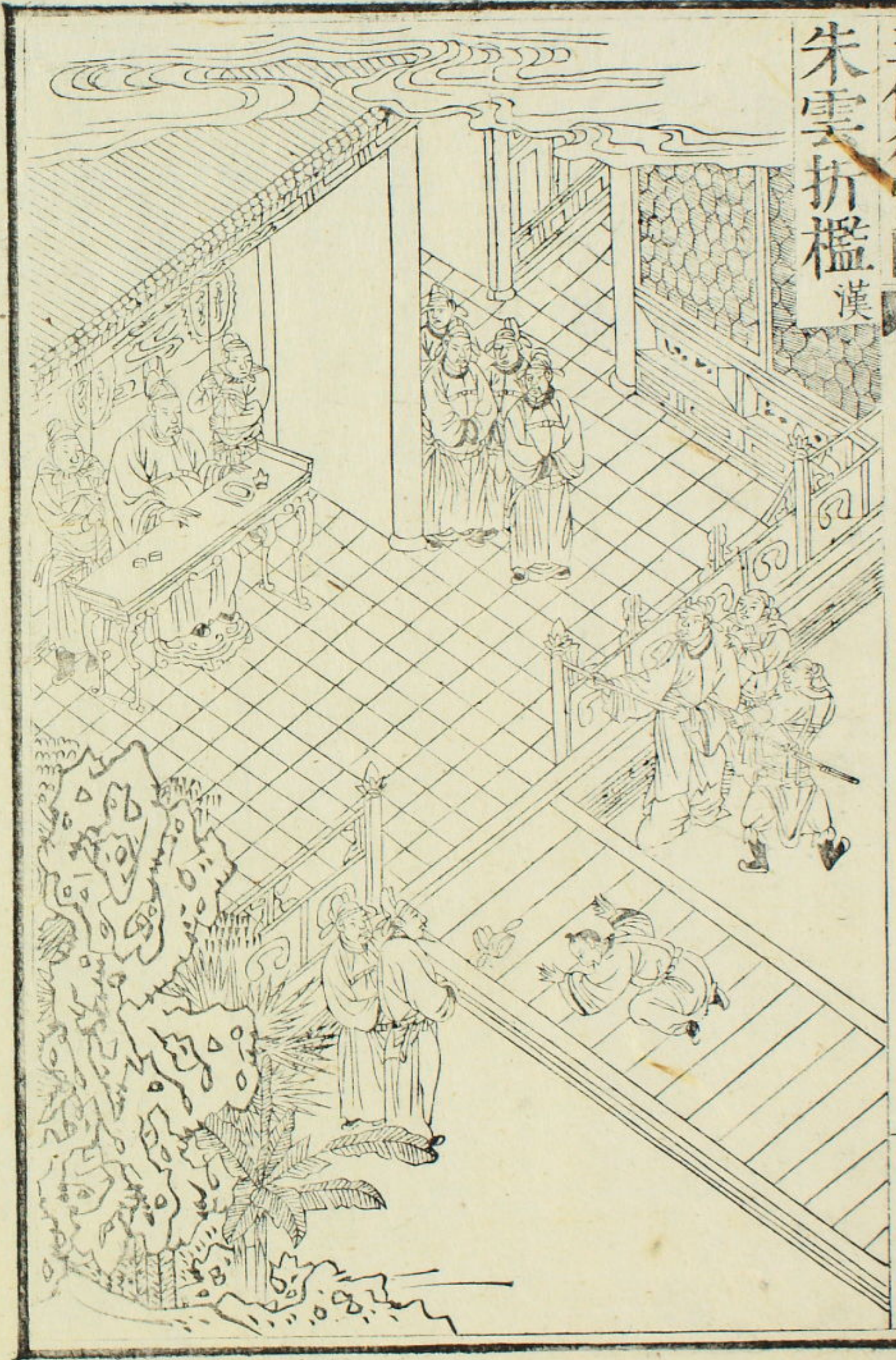
에들년를을섯거삼키더니다시복히우히옴겨

두고 하여곰 수양을 먹이 고 수양이 샅기 쳐야 노
하보내리 라 하니 뒤먹을 거시 업서 들에 쥐곰 클
과 쥐 먹던 풀 열미 돌 먹고 한 나라 절을 잡아 누으
나 안 주나 노 티 아 니 하니 절되 다 썩 러 디 더 라 선
위니릉 릉은 한 나라 양슈로
흉노의 항복 호재라 으 로 하여곰 술을 가지 고
무물 다 래 여 날 오 디 그 디 형 테 다 죄 에 죽 고 대 부
인 도 이 의 불 항 하 고 안 히 도 또 훈 리 가 하 었 는 디
라 인 성 이 아 참 이 술 마 트 니 었 디 구 트 여 이 러 트
시 괴 롭 게 하 느 뇨 뒤 곧 오 디 신 해 님 군 을 섬 기 매
주 식 이 아 비 섬 김 마 트 니 주 식 이 아 비 를 위 하 여

죽 어 도 호 호 배 업 느 니 원 권 대 다 시 이 런 말 을 말
라 릉 이 훈 가 지 로 두 어 날 술 먹 다 가 다 시 날 오 디
호 번 내 말 을 드 르 라 뒤 곧 오 디 이 의 죽 기 를 결 단
하 여 시 니 반 드 시 항 복 바 토 겨 하 거 든 청 권 대 알
픽 셔 죽 으 리 라 릉 이 그 지 성 을 보 고 탄 식 하 여 곧
오 디 슬 프 다 의 스 여 릉 과 위 를 은 죄 하 늘 에 다 하
도 다 하 고 인 하 여 눈 을 흘 니 고 무 로 더 브 러 니
별 하 고 갓 더 니 시 원 한 쇼 테 매
년 호 라 늑 년 에 위 비 로 소 도
라 오 니 라

朱雲折檻

漢



朱雲平陵人張禹以天子師國家大政必與定議時
 吏民多言災異王氏專政所致成帝然之乃至禹第
 問以天變因用吏民言王氏事亦禹禹自見年老子
 孫弱又與王根不平恐為所怨謂上曰災變之意深
 遠難見陛下宜修政事以善應之新學小生亂道誤
 人宜無信用上雅信禹由是不疑雲求見曰朝廷大
 臣皆尸位素餐願賜斬馬劍斷佞臣一人頭以厲其
 餘上問誰對曰張禹上大怒曰小臣廷辱師傅罪死
 不赦御史將雲下雲攀殿檻折呼曰臣得從龍逢比
 干遊足矣御史遂將雲去將軍辛慶忌免冠叩頭流

五倫行實圖
血爭上意解得已後當治檻上曰勿易因而輯之以旌直臣

詩災異雖云降自天實由王氏久專權奈何張禹
依阿甚廷辱當時氣凜然 誠心請斷佞人頭擬
與逢干地下遊治檻異時令勿易是知端爲直臣
雷

쥬운은한나라평능사름이니장위런조소부로
이셔국가의큰일은런지미양우로더브리의논
하더니이쇄에지변이만흐니사름이다닐오디
왕시 성례외
척이라 권을잡은연피라하니황테그러히너

기사장우의집에가런변을무르시고인하야왕
시의논하느말을니르시니위스스로싱각호디
나히늘고조손이약하니왕시와결원홀가두려
위하야상괴엿조오디지변되는디갑고머러
알기어려온디라폐하는맛당이정스름닷가어
딘일로응하실디니저문선비들이어즈러이말
하야사름을그릇되게하느니밋디마르쇼셔하
대상이본디장우를미드시느디라이러므로의
심티아니하시니쥬운이런조괴뵈와곧오디도
팅대신이다죽만먹고제딕척을출히디못호오

五倫行實圖
니 언권대참마검을주셔든훈아당하는신하의
마리궤버혀다른사름을딩계하리이다상이무
르시디늘을니른말인다디하여궤오디장우료
소이다상이대노하여궤은샤디져근신해네스
승을욕하니그죄죽여샤티못하리라어시운을
잡아느리거늘운이대궤난간을잡으니난간이
부러디닌디라운이크게소리하여궤오디신이
똥방비간을조차놀미궤하도소이다어셔드디
여운을잡아가니장군신경과관을벗고마리를
두드러피흐르도록드톤대상의쓰디져기플니

샤운의죄를샤하고후에그난간을고칠시상이
궤은샤디밧고디말고인하여궤쳐딕신을표하
라하시다



龔勝楚郡人仕漢為光祿大夫以王莽秉政乞骸骨歸鄉莽既篡位遣使奉璽書太子師友祭酒印綬安車駟馬迎勝即拜使者與郡縣長吏入里致詔使者欲令勝起迎久立門外勝稱病篤使者致詔付璽書進曰聖朝制作未定待君為政勝曰素愚加以老病命在朝夕隨使上道必死道路使者要說以印綬加身勝輒推不受使者為勝兩子及門人高暉等言朝廷虛心待君以茅土之封雖疾病宜移至傳舍示有行意必為子孫遺大業暉等白之勝曰吾受漢家厚恩無以報今年老朝暮入地諒豈以一身事二姓下

見故主哉因敕棺斂喪事語畢遂不復飲食積十四日死年七十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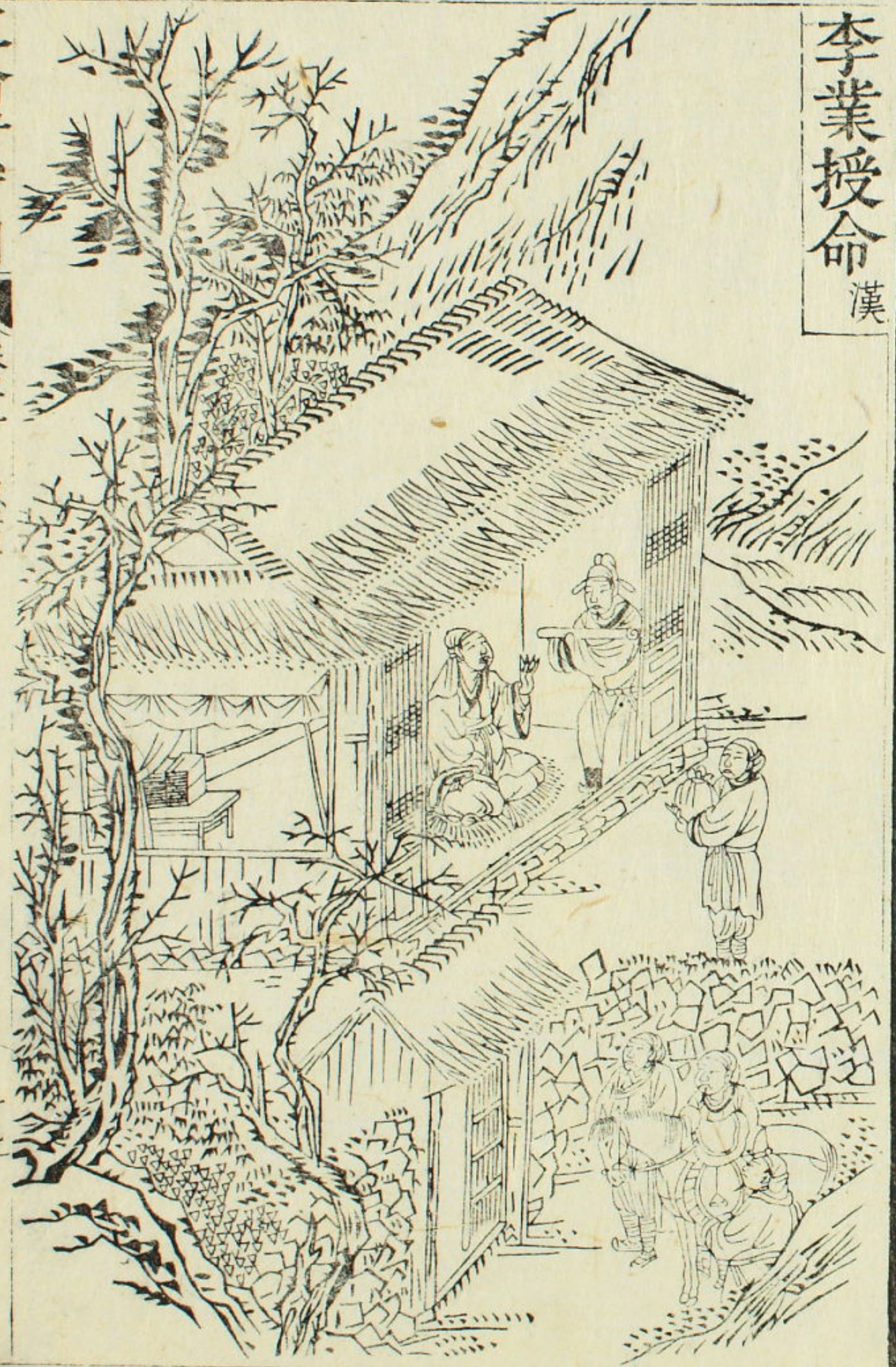
詩新室方興國柄移乞歸鄉里是其宜竟稱病篤無行意何用安車駟馬爲身加印綬禮雖勤臣子何心事二君絕粒旬餘仍不起聞風孰不挹清芬

공승은한나라초군사름이니벼슬하여광록태우에니르러터니왕망이정스를잡으니벼슬을버리고고향의도라갓터니망이찬역하매스자를보내여시셔_{도세}와태즈스우재쥬벼슬인슈

를밭들고거마를초와승을마줄시스재군현장니_{라원이}로터브러승의집의가도셔를전홀시스재승으로하여곰나와맛고져하여오래문밖괴셔시니승이병들물일것고나오디아니하니스재명을전하고시셔를맛져온오디도령제도를딩리못하여그디를기드리는니라승이곧오디내늘고병드러명이도석에이시니스자를조차가다가반드시길히셔죽으리라스재인을가져승의몸의터하니승이밀치고밧디아니하거늘스재승의아들과문인들드러닐오디도령이

口음을기우려기드리니니맛당이봉후에귀하
 미이시리니비록질병이이시나잠간각샤에올
 마헝헝뜻을뵈면반드시주손의게큰업을세치
 리라문인등이이말을승의게고하니승이곧오
 디내한나라후은을넘어감흐미업고이제나히
 늙어도모의죽을디라엇디흐몸으로두님군을
 섬기고디하의가벧님군을보리오하고인하
 상스제구를출히라하고밥먹디아니하
 여열나
 흘만의죽으니나히철십구세러라

李業授命 漢



李業梓潼人元始中舉明經除爲郎王莽居攝以病
去官隱藏山谷終莽之世公孫述僭號素聞業賢徵
之欲以爲博士業固疾不起述使尹融持毒酒奉詔
以劫若起則受公侯之位不起賜之以藥融譬旨曰
方今天下分崩孰知是非朝廷貪慕名德曠官缺位
宜上奉知己下爲子孫身名俱全不亦優乎今數年
不起猜疑寇心凶禍立加非計之得者也業乃歎曰
危國不入亂國不居親於其身爲不善者義所不從
君子見危授命何乃誘以高位重餌哉融見業不屈
曰宜呼室家計之業曰丈夫斷之於心久矣何妻子

之爲遂飲毒而死

詩明經應舉擅才名漢室除郎亦至榮告疾休官
終莽世公孫豈得餌公卿 天下分崩孰是非尹
融譬旨適貽譏丈夫固自由心斷妻子焉能授指
揮

니 업은 한나라 지동사람이니 원시 한평테 매
년호라 등에

명경과거하여 낭벼슬을 응엇더니 왕망이 찬역

하매 업이 벼슬을 버리고 산중에 숨엇더니 왕망

이 망후에 공손술이 촉을 응거하여 황테로라

일코고 업의 어딜 들듯고 불러 박스벼슬을 응이

려하니 업이 병을 일컫고 니다아니하니 술이 소
자를 보내여 독약을 가져 갑박하여 곧 오디면
공후에 위를 바들거시오 오디아니하면 독약을
먹이리라 하고 소재 또 다래여 곧 오디이제련해
어즈러오니 뒤시비를 알리오 또 텅이그디일흠
과덕을 스모하여 베풀노그디를기느리니 맛당
이우흐로 지기를 밧들고 아래로조손을위하여
신명이 완전하면 또 훈아름답디아니하라그디
이제수년을니다아니하니 또 텅이식귀하고의
심하여 흥화반드시니 르리니이논니훈계피아

니나라업이 탄식하여 곧 오디위티훈나라히는
드러가디아니하고어즈러온나라히는사디아
니훈다하느니내엇디벼슬을탐하여블의를조
차리오 소재업이쿨티아니하를보고 곧 오디맛
당이집안사름과의논하여보라업이 곧 오디양
뵈미음의결단하연디오란디라엇디쳐조와썩
하리오하고드디여독약을먹고죽으니라



嵇紹譙國人官侍中太弟穎僭侈日甚大失眾望司空東海王越等謀討之奉惠帝北征徵紹詣行在侍中秦準謂紹曰今日向難卿有佳馬乎紹正色曰臣子扈衛乘輿死生以之佳馬何為穎遣石超帥眾五萬拒戰超軍奄至乘輿敗績於蕩陰帝傷頰中三矢百官侍御皆散紹朝服下馬登輦以身衛帝兵人引紹於轅中斫之帝曰忠臣也勿殺對曰奉太弟令惟不犯陛下一人耳遂殺紹血濺帝衣左右欲浣之帝曰此嵇侍中血勿浣也

詩肅奉天威討亂臣肯論生死故逡巡蕩陰敗績

五倫行實圖

羣僚散獨被朝衣衛帝身 殺身終是要成仁千
古忠貞見一人血濺御衣仍勿浣按圖誰不為酸
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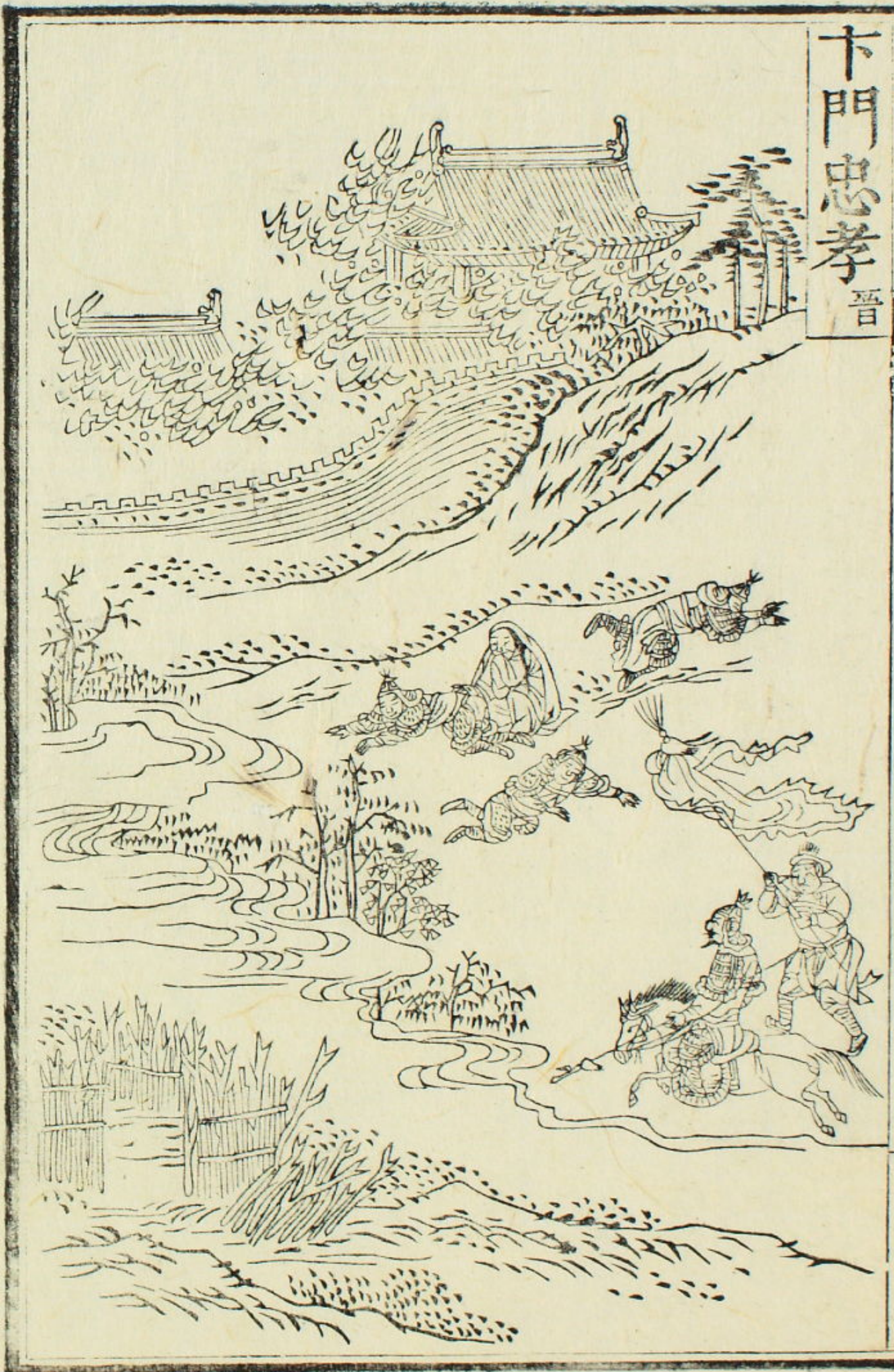
히쇼는딘나라 초국사름이니시 등벼슬을
더니이썬에태테영^{딘혜테}이반역하니모든신해
혜테를बाट러영을틸시히외또흔님군을되섯
더니시등진준이쇼드러닐러곧오디오늘난을
당하니그디도흔물이잇는나외텅싱고곧오
디신지스싱으로님군을호위홀디라도흔물을
무엇하니오하니라영이당슈를보내여마자빠

홀시영의군시불의에니르니 황테대패하니
치세살을맛고빅판이다흐터디되외홀로도복
으로물게느려황테트신술위에올라몸으로버
테를마리오니영의군시술위가온대셔쇼를잡
아내여벽으니테곧샤디이논통신이라죽이
디말라군시곧오디태테의녕을바다시니폐하
흔사름만범티아니하니이다하고쇼를죽이니
피썬여테의오시젓터라후에좌위테의오슬썰
고져흔대테곧샤디히시등의피니썬디말라
하시다

五倫行實圖 卷一 忠臣

下門忠孝

晉



卞壺濟陰人官尚書令蘇峻舉兵反陷姑孰濟自橫
 江臺兵屢敗成帝詔壺都督大桁東諸軍及峻戰于
 西陵大敗峻攻青溪柵壺又拒擊峻因風縱火燒臺
 省諸營皆盡壺背癰新愈瘡猶未合力疾苦戰而死
 二子眡盱隨之亦赴敵死眡母撫二子尸哭曰父為
 忠臣汝為孝子夫何恨乎贈侍中驃騎將軍開府儀
 同三司諡曰忠貞祠以太牢

詩強臣跋扈濟橫江屢敗臺兵犯大邦新愈癰疽
 瘡未合傾身苦戰死無雙 一門忠孝兩能全二
 子賢名孰比肩贈諡褒崇祠太牢輝光青史至今

傳

변곤은 단나라 제음사람이니 상셔령 벼슬을
 엮더니 소준이 반항하고 속사함을 듣고 횡강을
 건너니 도성군서 여러 번 패하거늘 현지곤을 명
 하여 제군을 거느려 준으로 더불어 셔릉의 셔빠
 호다가 크게 패하고 또 청계척의 셔빠 흘시준이
 바람을 인하여 불을 노화되^{셔올마}싱^{을이라}과 여러 영을
 다스르니 이새에 곤이 등창이 새로 나아오히려
 닳디 못을 엮더니 병을 강잉하^여 힘써 싸호다가
 죽거늘 두 아들 진과 위척 진의드라드러 흠씩 죽

으니 진의 어머니 두 아들의 죽음을 어르문지며 우
 러 곧 오디 아비는 통신이 되고 너는 효제되니 모
 어 슬은 응리 오나라 하시 등 표귀 장군 기부의 동
 삼수 벼슬을 튜증하고 시호하^여 곧 오디 통정이
 라하고 태외로 제하^니라

五倫行實圖
桓彝致死

晉



桓彝譙國人爲宣城內史蘇峻襲陷姑孰彝欲起兵
赴朝長史裨惠以郡兵寡弱山民易擾宜且按甲以
待彝厲色曰見無禮於其君者若鷹鷂之逐烏雀今
社稷危逼義無晏安乃遣將討賊別帥於蕪湖破之
彝尋出石頭聞王師敗績慷慨流涕進屯涇縣惠又
勸彝與峻通使以紓交至之禍彝曰吾受國厚恩義
在致死焉能忍恥與醜逆通和如其不濟此則命也
彝遣將軍俞縱守蘭石峻遣將韓晃攻之縱將敗左
右勸退軍縱曰吾受桓侯厚恩當以死報吾之不可
負桓侯猶桓侯之不負國也遂力戰而死晃遂進軍

城陷執彝殺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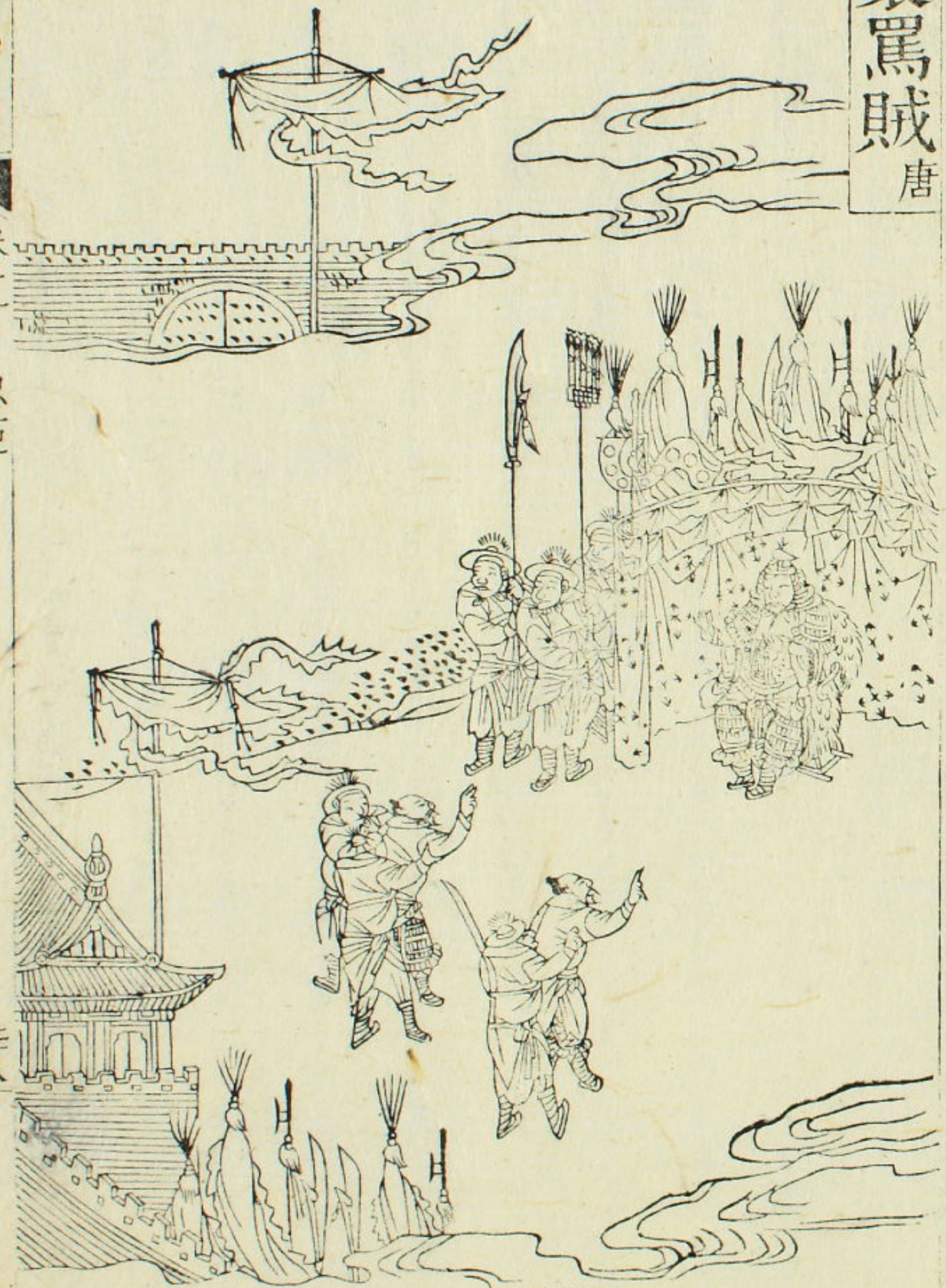
詩心期掃賊愧迤邐成敗曾將命付天俞縱感恩
終死報桓侯真箇以身先 賊勢強梁莫可接官
軍寡弱奈如何縱然死敵人臣分節義堅貞問幾
多

환이논딘나라초국사름이니선성너스벼슬을
하엿더니소준이고속싸흘함몰하니환이군스
를니르혀도성을구원하려하니회하사름이간
하여곧오디우리군시과약하고산군빅성이요
동키쉬오니아직군스름머므리기드리라흔대

환이텅석하고곧오디님군귀무레호자를보거
든매가새를엿듯하니이제샤적이위터흐를
보고엇디평안이안자시리오하고이에당슈를
보내여적장을러무호에서과하고환이석두성
으로나오다가나라군시패흐를듯고강개하여
눈물을흘리며군스름나와경현싸히딘척더니
후이권하여소준으로더브리화친하라흔대환
이곧오디내국은을넘어시니의맛당이죽을디
라엇디붓그러오를차마역적과교통하리오비
록죽으나이또한명이라하고장군유종을보내

여빠화소패하니 좌위종을권하여물러나라호
 대종이곧오디내환공의듯터온은혜를넘어시
 니맛당이죽으므로갑을디라내환공을져브리
 디아니흐믈곳환공의나라흘쳐브리디아남
 트니라호고드디여빠화죽으니적장이군을나
 와성을파호고환이를잡아죽이다

顏袁罵賊 唐



五倫行實圖
顏杲卿瑯琊人蔭調遷范陽叅軍安祿山聞其名表
爲營田判官假常山太守祿山反杲卿力不能拒與
長史袁履謙往迎之祿山賜杲卿紫袍杲卿途中指
衣謂履謙曰何爲著此履謙悟其意謀討祿山遂起
兵守備未完祿山將史思明蔡希德引兵至城下杲
卿晝夜拒戰糧盡矢竭城遂陷賊執杲卿履謙等送
洛陽祿山數之曰我擢爾太守何負而反杲卿瞋目
罵曰汝本營州牧羊羯奴天子擢汝爲三道節度使
恩幸無比何負於汝而反我世爲唐臣雖爲汝所奏
豈從汝反邪我爲國討賊恨不斬汝何謂反也臊羯

狗何不速殺我祿山大怒并履謙縛而劓之二人比
死罵不絕口顏氏死者三十餘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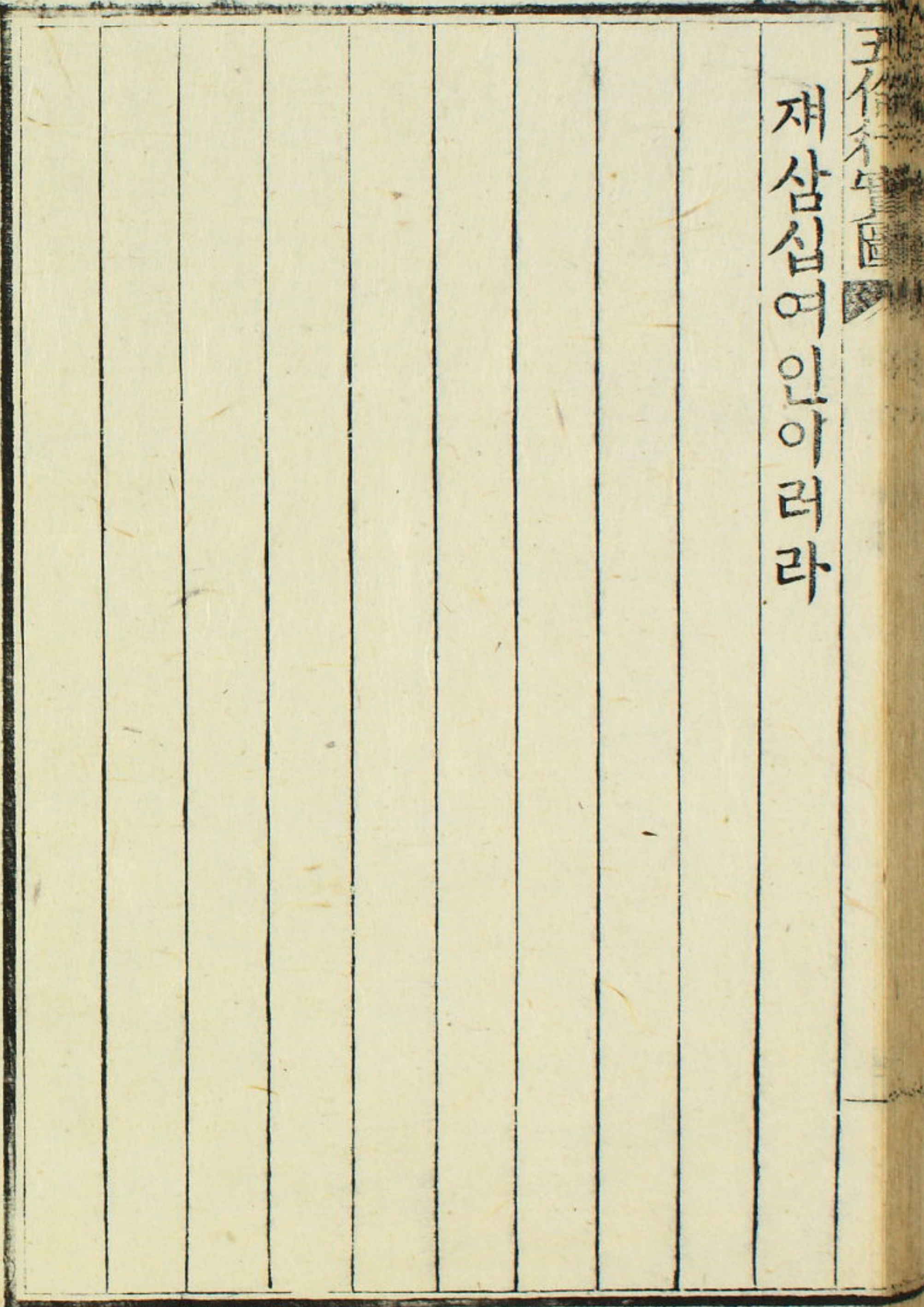
詩杲卿忠義上天知金紫光華志豈移賴有履謙
能悟意同心報國任身危 欲討姦兇起義兵力
窮城陷竟無成忠肝激烈剛猶罵青史昭垂不朽
名

안고경은당나라낭야사람이니범양참군벼슬
을하엿더니안녹산이그일홈을듣고도딩에청
하여상산태슈를하엿더니녹산이반하매고경
이능히막디못하여장수원니검으로더브리거

五倫行實圖
뜻녹산을마즈니 녹산이불근오솔주거늘고경
이바다남고가다가둥노에서오솔마르치며니
검드러닐러골오디엇디하여이오솔남엇노
니검이아라듯는다라드디여하가지로써하
여
군소를니르혀녹산을티려하대녹산이당슈를
보내여성을티거늘고경이듀야로빠화냥식과
살이진하여성이함몰하니적쟙이고경과니검
을잡아녹산의게보내니녹산이수죄하여골오
디내일즉너를천거하여벼슬을하엿거늘엇디
날을반하느다고경이눈을부릅쓰고우지저골

오디네본디영주에양먹이논오랑개로턴지너
를삼도절도스를하이시고은통이비홀디업스
니네게무어슬져버렸판디반하느다나는디디
로당나라신해라비록네천거하배되나엇디너
를조차반하리오내나라홀위하여도적을티매
너를버히디못하줄을하하노니엇디하여날드
러반하다하느다비린내나는개마든놈아썰리
날을죽이라하대녹산이대노하여고경과니검
을결박하여삭가죽이니두사람이죽기에너르
드록우짓기룰그치디아니하고안시에절스하

五倫事實圖
재삼십여인이러라



張許死守 唐



五倫事實圖
卷一 忠臣

主

張巡鄧州人許遠新城人祿山將尹子琦寇睢陽遠告急於巡巡自寧陵引兵入與遠晝夜苦戰一日或二十合遠謂巡曰遠請為公守公為遠戰子琦復徵兵數萬城中食盡人廩米日一合雜以茶紙樹皮議棄城東走巡遠謀曰睢陽江淮之保障若棄去賊必乘勝長驅是無江淮也且我衆饑羸走必不達不如堅守茶紙既盡遂食馬馬盡羅雀掘鼠巡殺其所愛妾以饗士賊登城將士病不能戰巡西向拜曰臣力竭矣生既無以報死當為厲鬼以殺賊城陷巡被執子琦曰聞公督戰大呼輒眦裂血面嚼齒皆碎何至

是巡曰吾欲氣吞逆賊顧力屈耳子琦怒以刀抉其口巡罵曰我為君父死爾附賊乃犬彘也賊以刃脅降終不屈并南霽雲雷萬春等皆被害生致遠於洛陽至偃師亦不屈死

詩賊寇睢陽勢甚張將軍戰守保危亡城中食盡飢羸極西向陳辭出肺腸 二公忠膽自相符壯節巍巍烈丈夫欲保江淮同固守力窮城陷竟捐軀

장순은당나라등류사람이오허원은신성사람이니안녹산의당슈윤조규양고을을티거늘

이새원이 슈양을 딛힌디라 장순의 게구원함을
청호대순이 군수를 거느려 슈양성통의 드러허
원으로 더 브러도적을 막을시 듀야로 힘써 싸화
호로 수십함을 싸호니 성통의 양식이 진호야 날
마다 달호흡과 차뵈던 도희와 나무거품을 씻거
먹는디라 후이 권호야 성을 버리고 드라 나라호
대두사람이 곧 오디 슈양은 강회에 등호싸히니
슈양을 버리면 도적이 반드시이 괴물인호여기
리모라드러을 거시니 이러면 강회를 다 버리미
오쇼우리 군시 주리고 병드니 엇디드르리오호

고곳이 딛히니 먹을 거시 진호매 물을 잡으며 물
이 진호매 새와 쥐를 잡아 먹다가 순이 그 사랑호
는 첩을 죽여 군수를 먹이고 통의로써 소졸을 격
동호니 호나 토반호 쓰지 업더라 도적이 급히티
니 당시 다 병들어 싸호디 못호는 디라 순이 셔향
저비호야 곧 오디 신이 힘이 진호였는 디라 사라
셔나라 호를 잡디 못호오니 죽어 맛당이 모던 귀신
이 되어 도적을 죽이리이다 호고 성이 함몰호매
두사람이 잡히이니 저귀순드려 곧 오디 드르니
공이 싸호제 크게 소리호면 눈마이 썩여디고 늦

치피나며니를 마라다바아디터라하니엇디그
 대도룩하니노순이곧오디내역적을호입에숨
 키고저호덕힘이글헝엇노라호대즈귀노헝여
 칼로순의입을찌치니순이셔지저곧오디나는
 님군을위헝여죽거니와너는도적을붓조초니
 이는개돗과호가지로도적이협박헝여항복
 바드려헝거늘종시글티아니헝고죽으니이새
 남제운과뇌만춘두사람이사로잡혀죽고허원
 은녹산의게잡혀가다가언스싸희니르러또호
 글치아니헝고죽으니라

張興鋸死 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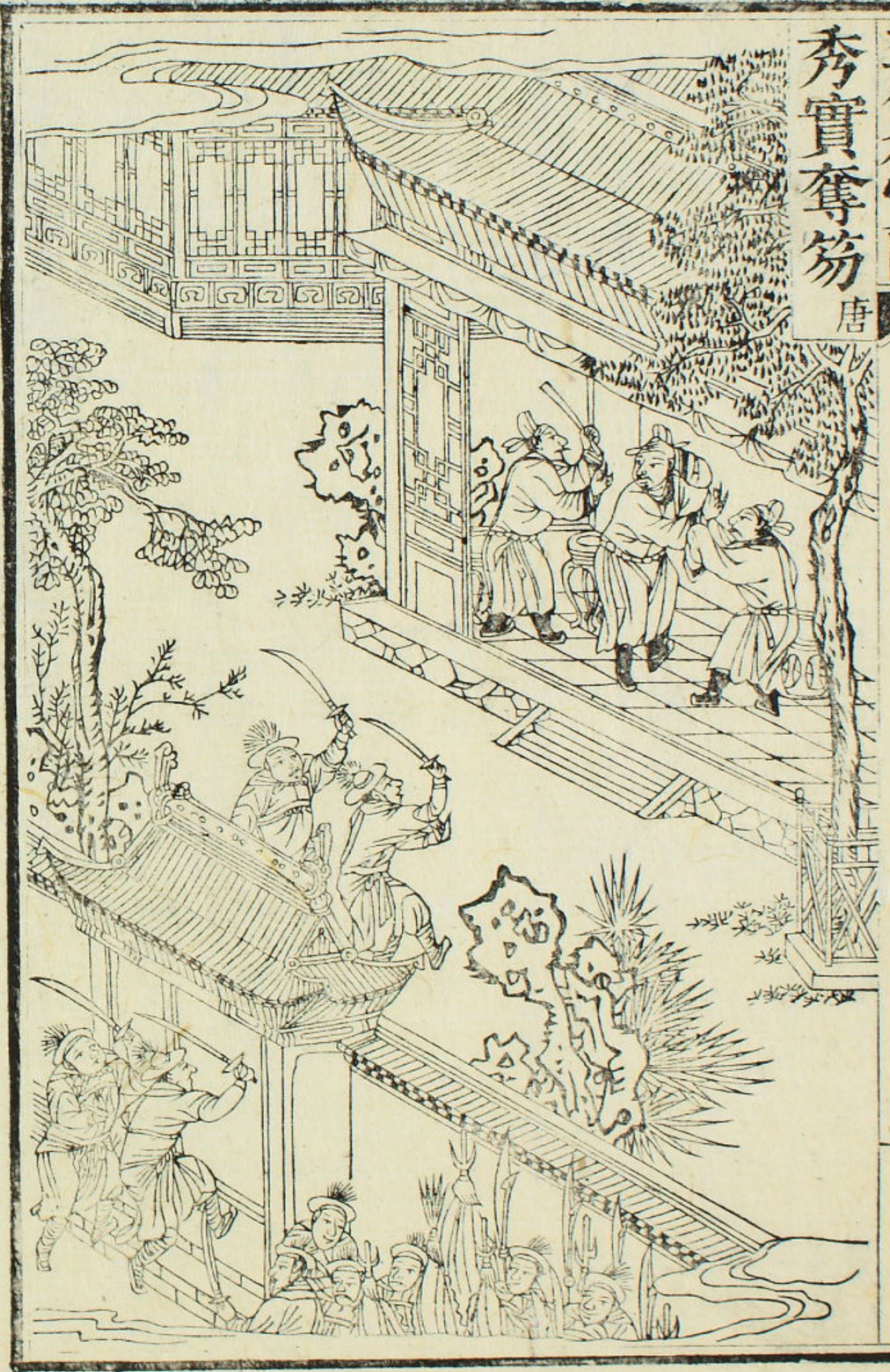
五倫行實圖
張興東鹿人爲饒陽裨將祿山反攻饒陽興嬰城固
守彌年不下滄趙已陷史思明引衆傳城外救俱絕
城陷思明縛之馬前好謂曰將軍真壯士能與我共
富貴乎興曰興唐之忠臣固無降理今數刻之人耳
願一言而死思明曰云何興曰天子待祿山恩如父
子羣臣莫及不知報德乃興兵指闕塗炭生人大丈
夫不能剪除兇逆反爲其下哉且足下所以從賊求
富貴耳譬如燕巢于幕豈能久安何如乘間取賊轉
禍爲福長享富貴不亦美乎思明怒鋸解之罵不絕
口以至于死

詩彌年不下守孤城併力攻圍勢已傾自謂固無
降賊理是知真箇丈夫情 被執纔餘數刻生君
臣大義說分明身膏鋸上忠肝裂罵賊終然不絕
聲

장흥은당나라속녹사름이니요양고을비장이
되엇더니안녹산이반흥여요양을티니흥이성
을구디디히여오래항복디아니흥더니녹산의
당슈스스명이군스를거너려요양을에위안니
성이적고구병이오디아니흥느디라스명이성
을과흥고흥을사로잡아다래여곧오디장군은

五倫行實圖
춤장식라우리와부귀를흐가지로흐면엇더흐
노흥이곧오되나논당나라통신이라항복홀리
업거니와내명이시즉에이시니원전대흔말만
흐고죽으리라스명이곧오되무슴말고흥이곧
오되던지녹산을디접흐시매은혜부즈마드여
군신이미처리업거늘녹산이은혜갑흘출을모
로고감히군스를니르혀나라흘범흐여성민을
도란흐니대양뷔능히흥적을버히디못흐고도
로혀그신해되랴네도적을쫓춤은부귀를구흐
미어니와비견대져비장막에깃드림마드니엇

디오래평안흐리오네승간흐여도적을잡으면
해도로혀복이되어부귀를기리누릴거시니또
흐아름답디아니흐랴스명이대노흐여흥을톱
으로혀죽이니죽도록썩짓기를긋치디아니흐
더라



段秀實汧陽人朱泚反以秀實久失兵必恨憤且素
 有人望遣騎召之秀實與子弟訣而往見泚曰犒賜
 不豐有司之過天子安得知之宜以此諭將士迎乘
 輿泚不悅秀實與將吏謀誅泚未發泚遣韓旻將兵
 迎駕實襲奉天秀實曰事急矣乃詐為姚令言符令
 旻且還謂同謀曰旻還吾屬無類矣我當直搏泚殺
 之不克則死使劉海賓等陰結死士為應旻至泚大
 驚召李忠臣源休及秀實等議稱帝秀實勃然起奪
 休象笏前唾泚面大罵曰狂賊吾恨不斬汝豈從汝
 反邪以笏擊泚中顙流血蟻面忠臣助泚泚得脫走

秀實謂泚黨曰我不同汝反何不殺我衆爭殺之

詩姚符詐作問何緣爲過旻軍襲奉天扞衛于艱

功不細芳名千載孰居先 黨惡崇姦寔有徒勃

然抽笏便忘軀形骸縱被人爭殺徇國忠誠竟不

渝

단슈실은당나라견양사람이니쥬지반한매슈

실이본리인망이잇고이새오래병권을일허반

드시도명을원망하리라하여군소를보내여브

르니슈실이집사람으로더브러영결하고가쥬

즈를보아의리로키유하여턴즈를마즈라한대

쥬지듯지아니하거늘슈실이당나라로더브러쥬

즈죽이기를썩하더니쥬지당슈를보내여군소

를거느려대가들마즈라하니기실은봉련 덕종 황제

쥬지반한제의을엄습하라는계피라슈실이르오디 관한디명이라

일이급한디라하고이에거죽요령언 쥬지의의병 망이라

부를하여가느양슈로도르블너도라오니쥬지

크게놀나니통신원휴와슈실을블너황제일곳

기름의논한대슈실이불연이니러나원휴의가

진흙을아사즈의늦쳐춤밧고크게사지저곧오

디미천도적놈아내너를버히지못하느줄을하

호노니엇디너를조차반호리오호고홀로조를
싸려니마를마치매피흘너늦치마득호디라니
릉신이쥬조를구호여드라나니슈실이조의당
드려닐너곧오디네너희와긋치반치아니호니
날을죽이라호대모든도적이드토아죽이니라

演芬快死 唐



石演芬本西域胡人事李懷光至都將尤親信畜爲
假子懷光軍三橋將與朱泚連和演芬使客郤成義
到行在言懷光無破賊意請罷其總統成義走告懷
光子瑋懷光召演芬罵曰爾爲我子奈何欲破吾家
今日負我宜卽死對曰天子以公爲股肱公以我爲
腹心公乃負天子我何不負公且我胡人無異心惟
知事一人不呼我爲賊死固吾分懷光使士鬻食之
皆曰烈士也可令快死以刀斷其頸德宗聞之贈兵
部尙書賜其家錢三百萬斬成義於朔方

詩將軍總統擅兵機與賊連和國事非唯有胡人

無異志冀陳行在反相違 公負君王我負公惟
知事上竭孤忠竟遭斷頸能全節千載爭欽烈士

風

석연분은당적셔역사롭이니절도스니회광이
사랑하여양조물삼앗더니회광이장춧역적쥬
조로덕브리년화하라홀시연분이마만이그뜻
으로버턴조고하니회광이알고연분을블러
꾸지저곧오디네내아돌이되여셔이제나를저
벼려우리집을망하려하는다분이곧오디턴조
논공으로버고핑을삼고공은날로버심복을삼

앓느니공이 타마련것물비반흐니내엇디공을
 저버리디아니흐리오나는오직흐님군만아노
 니나는역적이아니니죽어도흐이업소리로다
 흐대회광이군소로흐여곰분을쓰저먹으라흐
 니다곧오디널시라수이죽게흐자흐고몬져목
 을버히니련저드르시고분을병부상셔를투증
 흐고돈삼백만을그집의주시다

若水効死 宋



李若水洺州人靖康三年徽宗至金營以吏部侍郎
扈從金人逼帝易服若水抱持而哭詆金人爲狗金
人曳出擊之敗面氣結仆地粘罕曰必使李侍郎無
恙若水絕不食或勉之曰今日順從明日富貴矣若
水嘆曰天無二日若水寧有二主哉其僕亦慰解曰
公父母春秋高若少屈冀得一歸覲若水叱曰忠臣
事君有死無二吾不復顧家矣然吾親老汝歸勿遽
言令兄弟徐言之可也後旬日粘罕召計事若水因
歷數而罵之粘罕令擁之去若水反顧罵益甚監軍
者搥破其脣噴血罵愈切至以刃裂頸斷舌而死臨

死歌曰矯首問天兮天卒不言忠臣効死兮死亦何
愆

詩胡兵逼帝易黃衣吏部哀號獨抱持矯首問天
天不語臨終一曲最堪悲 雙親已老勢阨危何
不將身少屈爲縱使順從明日貴歲寒高節孰能
移

니약슈는송나라명주사름이니경강 송흠종대
년호라 삼
년에회종황데금인 오랑
개라 의게잡히여가니이새
에약쉬니부시랑벼슬로황데를되시고갓더니
금인이테를핍박하여황포를벗기고청의물받

고아님히려호거늘약쉬테를안고올며금인을
개라고사지존대금인이약슈를쓰어내어어즈
러이려호치새여디고괴절호여싸히업더디니
금당슈점한이닐오디니사랑을죽이디말라호
니약쉬밤을먹디아니호고죽고져호대혹이권
호야골오디오놀려를순종호면니일부귀호리
라약쉬탄식호여골오디하늘에두날이업느니
내엇디두님군이이시리오호니약슈의종이또
호프러닐오디공의부되나히늘어시니져기골
호여사라도라가미엇더호노약쉬사지저골오

디통신이남군을섬기매죽어도두모음이업느
니내다시집을도라보디못호노라그러나내어
버이늘으시니네도라가내죽는줄을급히숨디
말고내형테로호여곰종용히고호게호라후에
덤한이약슈를불러일들의논호거늘약쉬인호
여수죄호여사지즈니잡아느리위그입을려새
치거늘약쉬피를땀으며더욱사지존대칼로써
목을뺨고혀를버혀죽이니약쉬죽기를님호여
노래호여골오디마리롤드러하늘귀무르미여
하늘이모참내말을아니호시노또다통신이죽

○을닐위미여죽은들쇼훈무슴죄리오후너라

